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탈북 신학생 미국 방문, 한미 선교 역사 견학

한국 총신, 장신, 감신, 성결, 침신에서 공부하는 탈북 신학생 14명이 8월 2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탈북신학생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바른 역사 이해를 가지고, 조선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 또한 배울 예정이다. 더불어 미국 각 지역 한인교회에서 탈북증언과 간증집회를 인도하며 복음 통일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도 갖는다.

탈북신학생들의 미국 방문을 기획한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는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은 미국 선교사와 목사들이 조선을 약탈한 것으로 배운다”며 “북한은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 훈시와 주체사상 교육 등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을 교착화시킨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그동안 탈북신학생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올바른 역사를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이번 방문은 탈북신학생들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 선교와 복음통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탈북신학생들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이성우 목사(크리스천 헤럴드 사장)는 “탈북신



탈북신학생들의 미국 방문을 준비 위원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크리스천헤럴드 대표 이성우 목사, 큰빛감리교회 조현영 목사, 평화교회 김은목 목사, 크리스천헤럴드 윤우경 본부장, 미주성결교회 총무 김시은 목사, 기드온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 김수연 권사 ©기독일보

학생들은 통일 이후 북한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며 “북한 복음을 위한 목회자 양성에 미주의 한인교회가 협력하는 이번 사역은 매우 뜻 깊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TMTC(대표 임현수 목사,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가 주관하는 탈북신학생들의 이

뤄졌다.

8월 2일 LA에 도착하는 탈북신학생들은 은혜한인교회 방문 후 멕시코 선교센터로 출발해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된다. 또 LA 지역에서 유명 선교지와 이민 유적지 탐방을 통해 미국 선교와 한인 이민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탈북신학생들은 그랜드캐년과 라스베가스 관광 후 텍사스 달라스로 이동해 지역 한인교회에서 증언과 간증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는 YM 캠프 내 북한 기도처를 방문하고 JAMA 본부를 탐방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탈북신학생 미국 방문단은 8월 16일(화)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제3차 복음통일 세미나에서 간증하며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미주 지역 총신, 장신, 감신, 성결, 침신 교단 관계자들이 자리해 탈북신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

박상원 목사는 “탈북신학생들의 이번 미국 방문은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이후를 내다보며 한국과 미주 한인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욱 기자

미 연방법원, 'LGBT 보호' 바이든 행정명령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킨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써 20개 주는 성전환 운동선수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테네시 동부 지방법원의 찰스 애츨리(Charles Atchley) 판사는 '테네시 주 대 미국 교육부' 사건에서 연방 정부의 지침 시행을 막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테네시 주를 비롯한 19개 주는 미 교육부,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샬럿 버로우즈 EEOC 위원장, 미 법무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크리스틴

클라크 민권 담당 법무차관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19개 주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테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가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교육부가 서한을 통해 1972년 교육 수정헌법 제9조(Title IX)에 따른 '성차별'의 정의를 확장시킨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촉발됐다. 첨부된 자료표에는 교육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했다.

일례로 학교 교장이 자신을 트랜스젠더 성별로 인식한 남학생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에는 성차별로 간주된다. 또 코치가 여성 치어리딩 부에 도전한 남학생을 트랜스젠더 성별이란 이유로 거부할 경우 성차별로 해당된다. 이는 미국 법무부 민권 분과와 교육부 민권국이 교육부 자료집에 제공한 조사 대상 5가지 사례 중 일부다.

EEOC가 편집한 이 문서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고용 차별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애츨리 판사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여성과 소녀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수정헌법 제9조에 적



백악관 앞을 지나가는 LGBTQ 퍼레이드 참가자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용시키는 것을 유보했다.
 김유진 기자
 [3면에 이어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Jama 영상 중보기도 컨퍼런스

이 나라, 교회, 가정,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자가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2022년 JAMA 영상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2022년 8월 8일(월) - 13일(토) YouTube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 중보기도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엔진이다. ▪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강민수 목사 시카고 레이크뷰인교회 ▪ 가정을 위한 기도	안지웅 목사 메릴랜드 세스망교회 ▪ 청년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비상한 시기, 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남가주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실시하려고 준비해왔던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영상컨퍼런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1개의 메시지를 JAMA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준비해 띄울 예정이오니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김춘근 교수 JAMA / GLDI ▪ 지금은 비상기도가 필요한 때 ▪ 다음세대 지도자를 준비	허연행 목사 뉴욕 프리미스교회 ▪ 고국을 위한 기도	강순영 목사 JAMA ▪ 중보기도의 위력과 응답	이 비상한 위기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주신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드리며 이 모든 위기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기도의 전사들이 됩시다.	김춘근, 한기홍, 강순영
호성기 목사 필라 인디옥교회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위성교 목사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김은애 권사 QT LIFE MISSION ▪ 중보기도와 말씀묵상		

참여방법
 1. 교회적: 특별 부흥회를 하시거나 새벽예배시 설교를 사용하시는 방법. 일정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정하십시오.
 2. 개인적: JAMA 웹사이트(IPC.JAMAPRAYER.COM)나 유튜브에서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조회하여 말씀을 찾으십시오.

문의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 JAMA (903) 804-4016
 이메일 conference@jamaglobal.com
 우편주소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IPC.JAMAPRAYER.COM

기독교 문학 산책하며 아이티·수리남에 교회와 학교 건립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의 신간 '기독교 문학 산책'의 출판 감사예배 및 북 콘서트가 지난 24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카페 니모(1032 Crenshaw Blvd)에서 열렸다.

신간 '기독교 문학 산책'은 아이티와 수리남 아동들의 교육 기금 마련과 교회 건축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강태광 목사가 세계 명작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기독교적 안목으로 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기독교 문학 산책'에서 도스토옙스키, 단테, 펠릭, 미우라 아야코, 셰익스피어, 오스카 와일드, 까뮤, 나다니엘 호손, 우찌무라 간조 등 31명의 유명 작가들의 41개 작품들을 요약하고, 작가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크리스천 입장에서 작품들을 재구성했다.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와 수리남 교육 사업을 위해 '2만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책 2만권 판매를 통해 2만 명에게 아이티와 수리남의 교육사역 비전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목사는 "기독교 문학 산책을 통해 시대의 유명 작가와 만남을 갖고, 그들의 작품



카페 니모에서 진행된 '기독교 문학 산책' 출판 감사예배 및 북 콘서트 ©기독교일보

을 통해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며 "이 책의 판매 수익금으로 아이티 학교와 수리남에 예배실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평을 전한 강순영 목사는 "목회자들

과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며, 특히 목회자의 강단을 풍성하게 해줄 양서다.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기독교 문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티와 수리남을 도울 수 있다"고 추천하면서 일독을 권했다.

이날 출판 감사예배는 김은목 목사(평화교회)의 사회로 광견섭 목사(예은교회)가 "명령대로"(전 12:9-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한기형 목사(미주 CBS TV 대표)가 축도했다.

광견섭 목사는 "강태광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지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출판 감사예배 후에는 아이티와 수리남 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북 콘서트로 이어졌으며,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 공동대표회장),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 박광철 목사(솔트하우스 선교회 대표)가 순서를 맡아 인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임영호 목사(기독교 문인회)의 축도 마쳤다.

'기독교 문학 산책' 구입 문의는 323)578-7933 강태광 목사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강제 복송된 탈북 어민 2명,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 당했을 것”



엔키아 선교회 대표 김영구 목사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복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가주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엔키아선교회(NKIA, North Koreans In America Mission) 대표 김영구 목사는 '탈북 어민 강제 복송'을 현대판 인신공양이

자 '반인권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형당한 탈북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구 목사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연좌제가 존재한다"며 "평양 고위층도 잘못했을 경우 가족들이 처벌을 받는데, 강제 복송 당한 탈북 청년들의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복송시킨 이번 사건은 인간의 보편



강제 송환된 탈북 어부들이 판문점에서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구 목사는 또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복송 시킨 사건 이후로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탈북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탈북 어민을 강제 복송시킨 문재인 정권을 마치 대한민국의 반탈북 정서를 대변하듯 홍보하며, 탈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꺾고 김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욱 기자



LA 코리아타운에서 진행된 귀순 탈북선원 강제 복송 조치 규탄 집회 ©기독교일보

남가주 한인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귀순 탈북선원 강제 복송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본국 정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LA 한인타운 중심지인 윌셔 웨

스턴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남가주 한인단체들은 탈북 어민을 강제 복송시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확실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민국 역사지키기운동본부 김순희 회

남가주 한인단체, 탈북 어민 강제 복송 규탄

장은 "귀순 의향서를 쓴 북한 동포들을 김정은에게 바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남가주 교민들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의 동포인 탈북 어민들을 포승줄로 묶어 강제 복송 시킨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 양심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재권 장로는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던진 국가주도의 반인권적 문재인 정부의 범죄행위를 보며 비분강개한 심정"이라며 "강제 복송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마저 짓밟는 행위이며 또 다른 '살인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강제 복송시킨 탈북 청년들에게 16명을 죽였다는 거짓 누명을 씌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과 미국에 정착한 선량한 탈북자들을 모욕하고 강제복송의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역사지키기운동본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세계기도모임미서부지부,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엔키아(NKIA)탈북민선교회, 일사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 한미기독교연합회(KACC), 미주3.1여성동지회, 미주애국동지연맹, 남가주영관장교회 등 남가주 한인단체들은 미 의회에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P · R · E · A · C · H · I · N · G C · L · I · N · I · C

2022년 뉴노멀 시대

이동원 목사 초청 강해설교 클리닉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지구촌목회리더십센터 대표

- ▶ 일시: 10월 10일 (월) 2PM ~ 12일 (수) 9:30PM
- ▶ 장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 ▶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 특강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프리칭월드 대표)
- ▶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
- ▶ 등록비: 개인-\$150 / 부부-\$200
9월 30일까지 등록시 개인-\$100/ 부부 - \$150
Payable to 'Preaching World'
점심 및 교재 포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 ▶ 세미나 준비 및 안내
프리칭월드 권석균 목사 (404)579-4570
준비위원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준비위원 오정택 목사 (805)208-8242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213)718-151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 대표



오정택 목사
주하나 교회 담임



이인규 목사
기독교일보

*한인택시 (213)760-9818 *스타택시 (213)712-4040

라크마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평화' 노래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 윤임상 음악감독

8월 6일(토) 오후 7시, LA 다운타운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 우정과 하모니의 연합

in Friendship & Harmony)이란 주제로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라크마 합창단은 이번 음악회에서 LA 오페라의 디바 소프라노 샤나 블레이크 힐(Shana Blake Hill), 알토 안나 프리저(Anna Pflieger) 테너 오위영, 베이스 보리스 마티노비치(Boris Martinovich) 등과 함께 합창과 성악 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평화음악회는 세계 1차 대전 참전 용사로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영국의 작곡가 윌리엄스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오스트리아 압제에 저항하며 스위스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준 윌리엄 텔의 오페라, 우리 민족의 숨결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아리랑을 평화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우정의 메시지 등 3부로 나눠 연주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며 한민족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준 도산 안창호 선생

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표현한 "평화의 나라 (Country of Peace)", "애국 행진가 (Patriotic March)"를 통해 한민족의 기백과 희망을 선사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음악회를 준비하는 윤임상 감독은 "모든 민족은 동등하게 차별이 없어야 하고, 함께 우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세상을 일구며 살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메시지를 연주회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감독은 "지금도 전쟁의 공포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 땅에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한인 여성 2세대들이 중심이 된 우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의 활동을 협력한다. 티켓은 20달러



에서 100달러로 온라인 www.theLAKMA.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213)632-8580

김동욱 기자

“당면한 영적 위기, 중보 기도로 돌파한다”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 자료사진

JAMA 중보기도컨퍼런스, 8월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중보기도컨퍼런스를 통해 미국의 차세대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켜 온 JAMA가 오는 8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상 중보기도 컨퍼런

스를 개최한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웹사이트(IPC.JAMAprayer.com), 또는 유튜브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송출되며 각 교회는 특별 부흥회나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설교를 듣고 중보 기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중보 기도 컨퍼런스는 은혜한인교회 한기

홍 목사, 자마 김준근 교수, 필라안다교회 호성기 목사, 시카고 레이크뷰인약교회 강민수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위성교 목사, 메릴랜드 새소망교회 안지웅 목사, 자마 강순영 목사, 큐티 라이프미션 김은애 권사가 강사로 나서 모두 11번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순영 목사는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할 때"라며 "교회가 사도행전적 부흥을 경험하고, 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이 나라가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더 많은 중보 기도자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전세계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2022년 JAMA 영상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초대한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위기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중보기도컨퍼런스에 대한 문의는 강순영 목사 (310-995-3936) 또는 JAMA 본부 (903-804-4016)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한인들, 코로나 이후 '관계 갈등' 양상 두드러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심리 상담 통계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관계 갈등'이 총 30%(부부/파트너간 갈등 16%, 부모-자녀간 갈등 13%, 동기간 갈등 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해 관계 갈등이 23%(부부/파트너간 갈등 11%, 부모-자녀간 갈등 10%, 동기간 갈등 2%)였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로 한인들이 팬데믹 기간 관계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별 상위 기록된 주요 상담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0년부터는 관계 갈등(27%), 우울증(17%), 불안증(12%), 외상 후 증후군 관련장애(5%) 순이었다. 2021년에는 관계 갈등(23%), 불안증(10%), 우울증(9%), 트라우마(4%) 순이며,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는 관계 갈등(30%), 우울증(10%), 불안증(9%), 트라우마(4%) 순으로 집계 됐다. 2022년 상반기 내담자 수는 총 185명으로 31~40세가 22%로 가장 많고 여성이 70%, 남성이 30%이다. 2021년 지난 한 해 내담자수는 총 379명으로 41~50세가 2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이 67% 남성이 32%이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제니퍼 오 부소장은 "겉으로는 관계 갈등으로 표현되지만 내면에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 문의 213-389-6755 김동욱 기자

[1면 "미 연방법원, 'LGBT 보호...' 이어]

그는 판결문에서 "(교육) 부서와 EEOC 모두 각자의 지침 문서가 보스토크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스토크의 제한된 범위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보스토크 판결은 수정헌법 9조에 따른 성차별만을 다뤘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제9조와 같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 연방법 또는 주법'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성별 화장

실, 탈의실, 복장 규정'이 수정헌법 9조를 위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보스토크는 제7조와 9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피고들은 보스토크의 판결에 자신을 가두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 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일시 2022.9.13 (화) 10:00~15:00 장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일시 2022.9.19 (월) 10:00~15:00 장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림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등록 QR 코드

·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① 강사 저서 증정
- ②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③ 꿈미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④ 한국 방문시 오륜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⑤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적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사중복음’ 공유하는 3개 성결교단, 통합 가능한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 교단 간 통합 제안이 최근 다시 나왔다. 기성 교단이 지난 18~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개최한 제116년차 총회 정책 포럼에서다. 당시 젊은 목회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의했다.

그간 기성·예성·나성 교단은 성결교회의 정체성인 ‘사중복음’(중생·성결·신유·재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교단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항상 부각돼왔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기성·예성·나성 교단 지도자들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이하 한성연) 임원회를 개최하고 3개 교단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대표회장 이신웅 목사(신길교회 원로)는 “기성, 예성, 나성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큰 역사를 이뤄가자”며 통합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개 교단은 한성연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이룬 연합체는 아니라는 평가다. 3개 교단 관계자들도 “현재 교단 사이에서 통합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과거 기성, 예성, 나성 교단의 연합체인 한성연 정기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교일보

지난 2007년 당시 한국 성결교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성·예성 교단 사이에서도 통합 논의가 나온 적이 있다. 예성은 기성 측에 교단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탈퇴를 제시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기성 측이 NCCK를 탈퇴하자, 예성 소속 다수 교회들이 기성 교단에 합류하면서 통합이 성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막판에 이르러 예성 측 반발로 교단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결대 배본철 교수는 “지난 2007년 당시 교단 총회장을 중심으로 리더십들이 기성과 예성 교단 통합을 추진하려다 보니, 교단 아래서부터 통합 정서가 무르익지 못했다”며 “그 결과 2차례 통합 과정에서 예성이 기성 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모양새로 바뀌자, 예성 측 목회자들의 피해의식과 상처가 깊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기성을 중심으로 예성·나성 측 목회자들에 제도적 특혜를 많이 주겠다는 생각

으로 통합을 시도하기 보단, 형제의식이 교단 아래서부터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 역사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그 때 통합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성과 예성이 1961년 당시 분열했던 신학적 차이보다 교단 기독교 문제가 통합 과정에서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대 강병오 교수는 “현재 기성은 W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각 교단 목회자별로 WCC에 대한 입장도 갈리고 있어, 교단 통합 과정에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기성 총회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회 소속 목사·장로 각 500명씩 모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9%는 ‘성결교단이 3대 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통상 국내 3대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로 여겨져왔다. 이 같이 응답한 목사·장로 567명 중 47.1%는 ‘교회와 교인 수 축소’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44.4%가 ‘성결교단의 영향력 축소’, 41.3%는 ‘성결교단의 낮아진 위상’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노형구 기자

“탈북민교회 평균 사례비 53만원... 40%는 사례비 아예 없어”



성경책을 보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 ©순교자의 소리

북한내륙선교회, 기도편지 통해 탈북민교회들을 위한 기도 요청

복음적 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 내륙선교회(North Korea Inland Mission, NIM)가 7월 기도편지를 통해 특별히 탈북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탈북민교회 수가 20% 증가했고 이들 교회 중 79%가 출석 성도가 늘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40%의 교회는 사례비가 아예 없고 평균은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못 미치는 53만원인 상황”이라고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또 선교회는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입국한 탈북민들이 한

국사회 적응이 어려워 자살을 택하는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2-3배가 많고,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도 7배가 많은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면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도 알렸다.

이에 선교회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탈북민교회가 든든히 서고, 함께 동역하는 손길을 붙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면서 “또한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서 복음 통일 사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북한소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올해도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봤지만 김정은 정권은 외부의 지원을 여전히 거부하고 중국과의 교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계속되는 감시 속에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마저 더해가고 있다. 또 남북한 관계,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여전히 대화없이 경색되어 있다”고 전했다.

선교회는 “어두운 전망에 낙심하기보다 북한의 변화, 북한 동포들의 구원, 복음적 통일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 미주 한인교회들과 한국교회는 한민족 교회의 일원으로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열심히 연합해 달라”고 권했다. 김대원 기자

한국 예장 통합 미자립교회, 작년보다 30개 감소한 2,250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산하 제106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월식 장로)가 올해 자립대상교회는 2,250개로 지난해 대비 30개 교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교단지인 한국기독교공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총회는 전국 69개 노회의 지원금 총 153억 4천여만 원을 갖고 자립대상교회 1곳 당 월 평균 5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노회 가운데 자립대상교회가 제일 많은 곳은 전남노회(71곳), 가장 적은 곳은 서울남노회·부산남노회(7곳)로 조사됐다고 한다.

전국 노회 중 연간 동반성장사업비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여수노회(연간 5억 3600만 원), 자립교회 1개 당 월 평균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충청노회(84만 원)로 나타났다.

예장통합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와 더불어 올해 107회 총회에 위원회 존속 및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 3차 3개년 지침을 청원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위원장 이월식 장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자랑했던 우리 총회가 교세 감소, 고령화, 재정 감소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교회동반성장사업 3차 3개년 지침을 최대한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노회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전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대통령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계획”

5년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는 이신화 교수 임명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 인 출범 요청이 있었던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국회가 재단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서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이사 추천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또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이사 두 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1항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통일부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는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

민 모임(올인모)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제169차 화요일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년 내내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거부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조속히 같은 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몫의 추천 이사와 함께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에 따르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안이 통과됐다. 해당 대사직에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다고 한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김진영 기자



퀴어축제 중 주한 미국·영국 대사관 공동 부스 모습. ©주한 미국대사관 페이스북

청년들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퀴어축제 지지 발언 규탄”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비판 성명 발표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바로서다)’에서 동성애자로 알려진 신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부임하자마자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참여해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규탄 및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퀴어축제에 참석해 “어느 곳에서도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국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두고 갈 수 없다. 계속 인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서다는 “지나친 선정성과 미흡한 통제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3년 만에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약칭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바로 반대편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을 통해 나라를 지켜내

려는 국민들의 숭고한 노력이 크게 모인 데 감사한다. 이를 무시하고 퀴어축제를 통해 꾸준히 동성애를 미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만 귀 기울이는 편향적인 정치적 처사들에 계속해서 대항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청년들은 “책임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의 자유와 인권까지 존중하라는 요구에 응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되는 퀴어축제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피해자’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세울 미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요구하는 ‘획일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차이에 따른 존중’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제한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를 거스르는 퀴어축제에 대한 승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는 외교관들은 반대 입장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외교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자,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권면했다. 이대웅 기자

“통일교·신천지·JMS 등 반사회적 종교 법적 규제해야”

유사종교피해대책국민연대(상임대표 진용식 목사, 이하 연대)가 22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반사회적 사이버종교의 법적규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히 지난 6월 17일 정읍 살인사건 가해자 노모 씨를 사건 직전 상담하고 구치소에서 면회했다는 오명현 목사와,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의 범행 동기로 알려진 일본 통일교 전문가가 함께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분야별 발제 후 ‘사이비종교 법적 규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용식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정부를 향해 △교리적 성폭력 범죄집단 기독교복음선교회 JMS를 해체하고, 충남경찰청은 속히 정명서를 구속 수사하라 △모략전도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갈등과 중범죄를 유발하는 가정과피 범죄집단 신천지를 해체하고, 불법적 사기포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 △가짜난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대한민국을 포교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전신교 추종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난민법을 개정하라 등이다.

특히 ‘사이비종교의 정치개입 근절과 규제 대책’에 대해 “사이비종교의 정치개입 고리를 끊어내고, 가정 파탄으로 울부짖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이

를 보도하는 언론들을 위협하는 사이버종교를 강력히 제재하고, 정부 차원의 사이버종교 규제 대책을 시급히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JMS 교리적 성폭행 정명서 교수 수사 촉구’에 대해 발언한 김경천 전 JMS 부총재(안산 상록교회)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단사이비의 명명백백한 폐해까지 수수방관하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와 재앙은 볼 보듯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재는 “종교의 자유는 극도로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흑세무민하는 사고까지 무한정 보호하고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건전한 신앙생활로 행복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입법, 사법기관 등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정명서의 성범죄 피소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도 단호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와타나베 변호사(전국 영감상법대책 변호사연합회 부회장)가 줌(ZOOM)을 통해 ‘아베 전 총리 괴적사건과 일본의 통일교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일본 통일교 신도로부터 모은 헌금이 한국 통일교에 불법 송금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USA) 목회학사(M.Div.), 상담학박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전방위적 승인 SACS-COIS 2-02 자체 평가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O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학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미국인 10명 중 6명 “공립학교의 인종·성 정체성 교육에 불만”

미국인 유권자 중 다수가 공립학교가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여론 조사 기관인 ‘하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츠’(Hart Research Associates)는 지난 5월 대선 주요 격전지로 분류되는 7개 주의 유권자 1758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미국의 교직원 노동조합인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이 의뢰했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4%포인트다.

여론 조사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인종 문제와 인종 역할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불만족’(60%)한다는 응답은 ‘만족’(27%)에 비해 두 배 더 높았다.

‘성적 선호도 및 성 정체성’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58%는 ‘불만족’했으며 ‘만족’은 23%에 불과했다.

교육의 주요 문제로 유권자의 약 절반(49%)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교육’을 꼽았



©Neonbrand /Unsplash.com

다. 2위는 ‘교사 및 교직원 부족(45%)’이라 답했으며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존중 부족(40%)’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유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38%)’이 뒤를 이었다.

상위 4개 문제에 있어 유권자의 30%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충분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27%는 ‘인종 이론 교육’에 대해 우려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교육 면에서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 유권자의 39%는 교육 문제에 있어 ‘공화당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고 38%는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교육이 정치화 된 데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33%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꼽은 반면, 28%는 ‘공화당과 보수당’을 지목했다. ‘양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36%였다.

아울러 유권자 10명 중 6명(59%)은 ‘조 바이든의 대통령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랜디 웨인가튼 미국교원연맹 회장은 지난 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열린 ‘2022년 노동조합 대회’ 연설에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웨인가튼은 미국인들이 정치화된 교육에 신물이 났음을 보여준다고 “극단주의 정치인들이 출판물 금지, 커리큘럼 검열, 공교육 정치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썩기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공립학교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아동연맹 국가 연구 책임자인 코리 드 안젤리스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는 전장과도 같은 주의 유권자들이 교육에 있어,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교원 노조보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유명 찬양 사역자 “성 정체성 문제, 교회가 담대히 발언해야”

미국 예배음악 사역자이며 복음주의 순회 전도자인 손 퓨츠(38)가 세속화된 사회의 압력에도 용기 있게 발언할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 중에 ‘성 정체성’ 문제를 지목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그는 교회가 “성 혼란과 성 정체성을 실제로 다루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문화에 의해 성이 특징 지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베헤쉬임(Bethel Worship) 팀의 리더였던 그는 최근 발표한 ‘이마고 데이(Imago Dei)’가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보여주려는 열망에서 탄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가정에 대해 말해야 한

다. 범죄나 부패, 심지어 정체성 문제마저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버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회 붕괴의 근본 원인이 가족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건설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한 처방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가 세속화된 세상에 회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퓨츠는 “우리는 진정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전국의 (교회) 제단을 부르며 죄악에 대해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치심과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을 본다”며 “미국은 바로 지금 합성 마취제(opioid)에 빠져 있다. 미국인들은 약물, 펜타닐, 처방약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을 불러내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퓨츠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했을 당시, 전국의 200여 개 도시를 순



©Pixabay

회하며 ‘렛어스 워십(Let Us Worship)’ 찬양 집회를 가져왔다. 오는 9월 29일 개봉하는 영화 ‘슈퍼스프레더(Superspreader)’는 그가 주정부의 집회 해산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도 집회를 열어온 2년간의 일대기와 반응들을 담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교회가 “예수를 찾는 사람의 기본에 맞춰 따라가고 있다. 사람들의 마

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며 “우리는 힘을 잃었다. 모임과 집회들은 기독교 클럽에 가깝고, 결정권을 가진 통치 기구인 교회 모임(Ecclesia)과는 멀어졌다”고 말했다.

퓨츠는 “우리는 교회의 근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화에 호소하는 멋진 기독교 클럽이 아닌, ‘이 반석, 에클레시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교회가 문화를 정의하지 않고, 문화가 교회를 정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실로 힘없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다. 교회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진리의 전파자, 성경,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다면 바로 이때”라며 “교회가 문화적 문제의 핵심을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SNS 활동 재개한 팀 켈러 “낙태합법화 폐기 지지”



트위터로 근황을 전한 팀 켈러 목사. ©트위터

근황 나누며 팔로워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

이유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침묵했다. 또 현재의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난 이번 결정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할 말이 훨씬 더 많다. 실용적인 다음 단계를 가장 잘 요약한 2가지로, 로렌 그린 맥아피의 ‘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지지하고 있는가?’와 로스 두멧의 ‘로의 끝은 시작일 뿐이다’를 추천한다”고 했다.

서구 복음주의자들이 ‘문화적 명령’에 대한 현재의 해석을 재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화는 변하기 때문에 항상 문화적 의무를 재고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문화적 명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일종의 신정주의를 위한 보증으로 이를 의기양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됐다”고 했다.

또 비엔나와 같은 유럽의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면 지방에서 시작할지 도시에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항상 지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다른 설교자로는 딕 루카스와 마틴 로이드 존스를 꼽았다. 또 책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기 위해 노력 중이며, 매일 밤 아내와 한 시간씩 책을 읽고 나머지는 주말에 많이 읽는다고 했다. 가장 쓰기 어려웠던 책으로는 ‘고통에 답하다’를 꼽았다.

강혜진 기자

美 카페 3천 달러 팁 화제… “예수를 위한 팁” 운동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카페 직원이 ‘예수를 위한 팁’ 운동의 일환으로 3천 달러를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스크랜튼에 있는 알프레도 피자 카페(Alfredo's Pizza Cafe)에서 일하는 마리아나 램버트(Mariana Lambert)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모두가 힘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말 제게 큰 의미가 있었고 마음에 와 닿았다. 아직도 이를 믿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 팁을 준 남성의 이름은 에릭 스미스(Eric Smith)이며, 그는 “외부에서 왔지만, 여러 곳들을 여행하며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램버트에게 남긴 것과 동일한 팁을 남기고 있다. 이는 ‘예수님을 위한 팁’이라는 유행”이라고 전했다.

램버트는 “이제 외식할 때 추가로 팁을 더 줄 것”이라며 “당신이 팁을 약간만 추가로 받는다 해도 집으로 돌아올 때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이는 정말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그녀는 그 돈을 사용해 청구서를 결제하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15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크루도(Crudo)라는 식당에서 바텐더로 일했던 클린트 스폿렛슨(Clint Spottleson)은 419달러가 조금 넘는 두 개의 별도 청구서를 합해 총 11,000달러의 팁을 받았다.

이 같은 운동은 2013년 9월 미시간주 앤아버의 한 바에서 대학 미식축구 경기



©픽사베이

가 끝난 후 시작됐다. 당시 1.9달러짜리 커피를 마신 한 남성은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와 친구들은 오랫동안 후하게 팁을 줬지만, 그날 오후에 87.98달러짜리 수표에 3,000달러의 팁을 남기고, 인스타그램에 영수증 사진을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불과 두 달 만에 이 같은 방식으로 5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 소식이 인터넷에 확산됐다.

그는 “일반인들에게 직접 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전통적인 자선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임시 자선 문화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 것뿐이다. 돌려주는 건 어렵지 않다. 약간의 팁을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술값을 지불하고, 수만 달러 이하라도 작은 친절을 베푼다. 훌륭한 봉사가 정당하다면 모든 사람이 아낌없는 팁을 얻을 수 있으며, 예외는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www.LASarang.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2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위한 자녀, 이만2세를 위한 부모,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번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 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8: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침기도회(아침)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기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줄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프랭클린 그래함 “코로나 감염된 바이든 위해 기도해 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tehouse.gov

미국의 전도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자선단체 사마리안퍼스와 빌리그래함 전도협회(BGEA) 회장인 그래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성경은 우리가 그들의 정책과 정치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3차례 접종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백악관 직원들 역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우려에 감사하고, 대통령은 코로나19 양성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렸다.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후통, 콧물, 목살,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며 “계속해서 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 우리는 계획대로 파스로비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은 변종인 BA5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인 코로나 환자의 80%가 BA5에 감염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지낸 데보라 벅스 박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를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틱톡 챌린지로 여학생 2명 사망, 美 기독교단체 “어린이에게 치명적”



©Pixabay

틱톡 온라인 챌린지를 하다 사망에 이른 소녀 2명의 부모가 틱톡을 고소한 가운데, 한 기독교단체는 적절한 감독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는 ‘블랙아웃 챌린지’로 알려진 틱톡 챌린지를 시도하다 사망한 두 여학생 딸라니 에리카 윌튼과 아리아니 제일린 아로요의 부모를 대신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Lt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챌린지 참가자들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세와 9세인 윌튼과 아로요는 챌린지에 참여한 후 사망했다. 이들의 부모는 “틱톡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 수석 부편집장인 폴 아세이는 소셜미디어에 “내재된 아이러니가 있다”면서 논쟁에 무게를 실었다.

아세이는 CP에 “이같은 응용프로그램은 우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업이기도 하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건강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세이는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중독성 있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사이트에서 발견된 콘텐츠는 특히 어린이에게 해를 입히고 위험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문은 “응용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각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과 각 사용자의 피드는 고유하고 특정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를 보여 주는 영상이 어린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자녀에게 챌린지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두 여학생의 부모는 “회사가 어린 사용자를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거나 응용 프로그램의 중독성 또는 위험한 문제의 존재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P는 틱톡에 논평 요청을 했지만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아태 하나님의성회 총회장들, 아시아 오순절교회 사명 확인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의성회 총회장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APAGF 정기총회, 지난 20일 말레이시아서 열려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의성회 총회장연합회'(Asia Pacific Assemblies of God Fellowship, 이하 APAGF)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포포인츠호텔에서 열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도 참석했다.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에서 참석한 총회장들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미국, 몽골, 홍콩 등 3개국 대표들은 아시아 지역 오순절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변화하고 있는 선교지역과 교회의 부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올해 APAGF 총회에서는 선교(Mission), 신학교(Bible school), 다음 세대(Next generation) 등 소주제로 나눠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개발과 신학교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오순절 신학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 이후 가진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의 교회 상황과 선교사역을 전하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영훈 목사는 "오는 10월에 전 세계 170개 국에서 5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제26회 세계오순절대회(PWC)가 한국에서 3번째로 열린다"면서 "특별히 셋째 날에는 남한과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평화누리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APAGF 회원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했다.

APAGF 의장 도미니크 여 목사(싱가포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예전에 비해 60%의 성도만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서 "2033년까지 우리가 꿈꾸는 100만 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더욱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했다.

회원들은 각 국의 예배 회복과 10월에 열리는 PWC 행사를 위해 기도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19~21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ALS(Asia Leaders Summit) 회의와 부흥성회 일정 중 19일 참석해 설교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인도네시아서 무장괴한 공격으로 목회자 포함 10명 사망



인도네시아 지도 ©위키미디어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분리주의 무장괴한들이 트럭을 습격하고 승객들에게 발포해 기독교 목회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무장괴한 20명은 집회를 가고 있던 목회자 엘리자베 바네르를 비롯해 외딴 고지대를 통해 물품을 운반하던 상인 9명을 습격했다고 국제기독교연대(ICC)가 전했다.

파푸아 분리주의 단체인 자유파푸아 기구(Free Papua Organization) 군대인 서파푸아민족해방군(TPNPB)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11명의 (인도네시아인과) 파푸아인을 살해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사진을 찍고 TPNPB가 질문했을 때 반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파푸아의 독립 전까지 파푸아인이 아니거나 수상한 파푸아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IC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교회협회 정의와 평화 데스크 헨켈 로크라 사무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민간인 살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독립을 요구한 반란은 1969년 인도네시아가 국민투표를 통해 영토를 병합했다고 주장한 후 파푸아에서 시작됐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2천40만 개신교도와 842만 가톨릭 신자가 있으며, 이는 총 인구 2억7223만 명 중 10.58%를 차지한다고 내무부 민사등록부 사무총장은 밝혔다.

지리적으로 무슬림이 다수인 30개 주가 인도네시아에 있다. 서파푸아를 포함해 4개 주에서 이슬람이 소수 종교이거나 50% 미만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판차실라(Pancasila)를 기반으로 한다. 즉, 유일하신 신과 사회정의, 인류애, 통합,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지지하는 5가지 원칙을 뜻한다.

바네르 목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판차실라를 반대하고 기독교인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극단주의 단체가 많다고 CP는 전했다.

교회는 종종 비무슬림 예배당 건축을 방해하려는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천개 이상 교회가 그러한 단체의 압력으로 폐쇄됐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환어 침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대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OC제물 주일 9:00, 11:00, 1:00, 3:00
주말 9:00, 11:00, 1:00, 3:00
주말 9:00, 11:00, 1:00, 3:00
주말 9:00, 11:00, 1:00,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 오전 6:00
19514 Redwood St., Northridge, CA 91321, 818-883-9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8: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2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인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침년부 오전 9:30, 11:30
환어(환향)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영아)예배 오전 9:30
침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침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애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요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침년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침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환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침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침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려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4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령요: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뜻을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62

“선교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야기(1)”

필자는 목회자 선교 동역자들이 여럿 있다. 그중 절친하게 십여 년간 같은 선교 단체를 섬기면서 교제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다. 최근 각자 단기 선교를 마치고 2개월 만에 만남을 가졌다. 가장 먼저 필자가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B 목사는 네팔로, C 목사는 터키로 다녀왔다. 이번 만남은 각자의 선교지 이야기, 선교 간증 등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자녀들이 같은 선교 단체의 SM(대학생 선교사, 1년 이상)을 다녀왔다. 그리고 현재 미주의 EM 권에서 다민족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사모님들까지 선교 사역자로 열심히 동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동역자들이 만나면 온통 열방 이야기이다. 정말 좋다. 마그렘 창이 선두 주자인 나라는 단연 모로코다. 모로코의 영적 기류가 변하고 있다. 복음만 전하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현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슬람권 나라들의 특징은 청년층이 많은 것이라 생각한다. 선교 현장을 가 보면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모로코 청년들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타민족에 비해 많아 보였다. 어느 도시를 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청년들이 늘 있었다. 그들 중에 깊이 전도를 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자기는 이슬람 나라에서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이라 하지만 알라는 믿지 않는다고, 자신은 무슬림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선교를 다녀온 지 3주쯤 되었을 때 현지 장기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다. 필자가 만난 영혼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번 주부터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정말 보람 있다. 기쁘고 감사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

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네팔을 다녀온 B 목사에게서 놀라운 현지 소식을 들었다. 네팔 국민의 80% 이상이 아리안족 힌두교도들이다. 네팔 이름 자체가 그들의 수호신이 보호한다는 뜻이다. 네팔의 정치는 왕정이 폐비 된 후 공화정으로 들어서면서 처음 도입한 중국의 공산주의 정책이 실패를 보았다. 최근까지 오랜 내전으로 나라 전체가 피폐해졌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어려운 살림으로 인해 그 마음을 잡을 데 없이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과 미래가 없는 청년들의 방황이 심화되고 있다. 그 땅에 우리 선교 단체의 선교사들이 들어 가면서 비전 스콜이 생기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희망, 그들이 잡을 새 비전, 살아갈 목표가 생기는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다. 자신들의 오래된 종교를 이미 버린 이들이 많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할 때 반발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다. 그래서 전도가 쉬운 편이라고 했다. 복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도 보았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나면 눈물이 가득 찬 영혼들의 변화를 경험했다.

터키는 필자도 십여 차례나 방문하였던 나라다. 거의 터키 전역을 돌았다. 터키는 도시들마다 난민들로 가득해졌다. 난민들이 영적 돌파구이다. 이란 난민을 선두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시리아 난민 등으로 터키 전역에 수백만 명이 퍼져서 살고 있다. 난민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알라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다. (계속)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를 빼고서는 영국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천주교 편에 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으로 종교개혁의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에라스무스와 더불어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주도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당대 최고의 인문 학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토마스 모어는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출발했다가 수도사가 되었고, 당시 왕 헨리8세의 도움으로 하원의원이 되고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토마스 모어에게 들려줍니다. <유토피아>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권을 먼저 쓰고 1권을 나중에 쓴 것 같습니다. 제1권은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고, 제2권은 유토피아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권은 영국 농부들 대부분이 비참하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시로 가야하고, 특히 방랑, 구걸, 절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탄합니다. 당시 영국은 양모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작용 농지를 목장으로 만들고, 가축을 헐었습니다. 남겨진 교회는 양 우리 용이었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땅과 집이 없어 걸인이 되고 도적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양이 사람을 먹어 치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모든 사회계층에 만연한 사치 풍조와 사형성 오락이었습니다.

모어는 사회가 도둑을 양산하는 상황에서 가벼운 절도죄도 교수형에 처하는 엄벌주의의 부당성을 비판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절도는 벌금형임을 상기시키면서, 절도범을 살인범처럼 극형으로 처벌함에 불합리성을 주장합니다. 대안으로 절도범을 공공사업장에 중노동형에 처할 것을 권합니다.

<유토피아>의 제2권은 라파엘의 유토피아 견문록입니다. 유토피아의 지형, 도시, 경제, 결혼제도, 전쟁, 종교, 가치관 등이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유토피아는 섬인데 54개 도시가 있고, 수도 아마우로토도 런던과 흡사해서 영국과 유사한 조건입니다. 농지는 재산이 아닌 경작지입니다.

도시 주민은 교대로 시골에 나와 거주합니다. 집은 제비뽑기에 의해 할당되며 10년 마다 이사합니다. 시민들은 공동생활을 합니다. 식사는 집이 아닌 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합니다. 회관 히드렛일은 모두 노예들이 합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하루에 여섯 시간 즉, 오전에 세 시간, 점심 먹고 두 시간 쉰 다음에 다시 세 시간 일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8시경 잠자리에 들어 여덟 시간 동안 잔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의 낮 시간에는 자유롭게 보내는데, 주로 지적 활동을 합니다.

유토피아 공화국에서는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있지만 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금과 은을 그 금속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실용까지 이상으로는 평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됩니다. 또한 금을 하찮게 취급합니다. 가령 요강, 번기, 노예를 묶는 사슬과 족쇄 따위를 순금으로 만듭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여자는 18세, 남자는 22세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혼전성교가 발각된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사면이 없으면 평생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 남녀 모두 보호자 임회하에 상대방에게 알몸으로 선보입니다. 결혼 후에 중대한 신체적 결함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일처제를 엄수하며 부부는 죽음에 의해서만 헤어집니다. 간통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노예형이 선고되고, 두 번째 이면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유토피아인의 여행은 시장이 발행한 여행증 소지자의 단체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증 없이 본거지를 떠났다가 붙잡히면 탈주자로 엄벌을 받고, 한 번 더 그런 짓을 하면 노예가 됩니다. 여행중에도 농촌에 가서 오전이나 오후 한나절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그리는 사회 중 상당부분은 당시 영국과 유럽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가 풍자하는 사회의 부조리는 당시 영국과 유럽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현실과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금과 은을 천박하게 여기는 유토피아를 보여주면서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려진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려진 가상사회 유토피아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이 책 한편으로 영국 사회는 물론 온 유럽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기운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한)국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제미 필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하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6



서울성고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중략)...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구속(拘束)의 반대는 자유(自由)이고 압제(壓制)의 반대는 해방(解放)입니다

1. 자유케 하는 진리

A.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意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양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선민사상(選民思想)에다 율법준수(律法遵守)자로 자처하며 우쭐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갈파(喝破)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참 자유에 대한 그릇됨을 일깨워 주시려는 교훈(教訓)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에 400여 년, 바벨론에 70여 년 지금도 로마제국의 식민(植民)으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남의 종(從)된 적이 없다는 말로 속박(束縛)이나 자유에 대한 무감각(無感覺)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저 형편과 처지에 밀리며 연명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B. 인류(人類)가 왜 구속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6-17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하신 말씀 속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2:9에서 생명나무라 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善惡果)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허락 받은 생명과일만 따먹고 살았으면 에덴 낙원에서 영생할 수 있었겠는데 창세기 3:1-6에 가장 간교한 뱀(사탄)의 꾀임으로 이성을 잃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먹게 함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신종(信從)했기 때문에 영적소속(靈的所屬)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예속(隸屬)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이브가 따먹고 죽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경계의 표준을 삼고,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 하도록 하신 것 입니다. 또 의문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게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방치(放置)하심으로 이브가 따 먹게 된 것은 하

나님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들이 기계적으로(존경심도, 정성도, 의지도 없이) 섬긴다는 것인데, 그 섬김에 대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환난과 핍박, 죽인다는 위협과 극심한 고통)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와 기도로 견디며 이겨내는 것을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하셨고, 로마서 6:16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심과 범죄한 인생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 뿐 아니라 계속 마귀에게 속아 이용 당하며 계속 범죄로 지옥 길을 재촉하게 된답니다. 결국 사탄의 앞잡이로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훼방,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 발악하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 107:10-12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하신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깊은 절망상태로 죽을 지경으로 몰린다는 뜻이겠고 곤고는 곤란하고 괴롭다는 뜻이며, 쇠사슬에 매임은 중죄인으로 쇠사슬로 된 포승 줄에 억매어 형무소와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에베소서 4:18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에베소서 2:1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되는 일이 없고 매사가 꺾이고 어긋나며 실패도 하고 사람과 돈에게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꾀임에 속아 범죄한 죄 값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39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하셨습니다.

2.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A. 요한복음 17:17에 "저희를 진리로 거

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였고 요한복음 14:6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심을 보아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10-20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 값으로 영육간(靈肉間)에 죽어가던 죄인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하심으로 영육간에 죄악에 얽매어 지옥으로 끌려가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곧 예수그리스도)을 보내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죄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가 철저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죄를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은혜 안에 자유하며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의 사슬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B.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계속 종 노릇 하지 말라

로마서 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귀에 의한 율무와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진리와 은혜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公義)의 실천(實踐)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 주셔서 믿고 구원 얻어야 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가시와 창에 찔리시면서 피를 쏟아 죽임 당해주시는 구원 교리를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마 1:21)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롬 8:16)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해야 죄로 인한 온갖 불행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되는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더욱 악랄하여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범죄 즉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직고(直告)하기도 하고 이미 범죄 한 것을 옹무로 계속 악용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1서 1:9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했으며, 히브리서 4:16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하셨으니 참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위하여 서둘러서 회개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그리스도의 구원복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인데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귀신에게 더 시달리며 종노릇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2:5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며 서둘러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본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강준민 칼럼

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의 가족은 매년 같은 장소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오션사이드 해변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 바다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손자가 태어나서 올해는 가족이 한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장소로 가족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는 어쩌면 같은 장소를 좋아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장소로 휴가를 다녀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장소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은 제 기질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은 장소, 늘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도 싫증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만남만 추구하다 보면 늘 곁에 있는 사람

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만남을 깊이 가꾸는 것과 새로운 만남을 즐겨워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주어진 장소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배움을 얻게 해 줍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너무 새로운 것에 매혹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매혹되다 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날마다 만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선물해 줍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배운 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한결같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파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파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도를 탈 뿐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거대한

바다와 계속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할 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십시오.

둘째, 바다를 통해 경계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이 경계입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시 74:17).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시 104:9).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의 경계가 없다면 해변가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 한 바닷물은 일정한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파도 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를 향해 수영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만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으며,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정해주신 경계를 사랑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

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계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정하신 구역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기면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바다를 통해 품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내와 강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품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어 정화시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를 키웁니다. 다양한 물고기를 품습니다. 바다의 품은 넓습니다. 바다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시내와 강의 왕입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품을 닮았습니다. 우리를 품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통해 배운 지혜를 함께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3-②

MZ세대가 메타버스로 빠지는 이유?

지난해 2021년 NFT 시장 거래액은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거래된 가상부동산 규모는 6,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게임업계와 엔터 업계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가상 인물로도 돈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는 19세입니다. 직업은 팝 가수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10만 명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광고 한 개당 수익 1,000만 원씩 받습니다. 2020년 한 해에 벌어들인 돈 130억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 Lil Miquela인데요. 그녀는 가상 세계 속

가상 인물입니다.

메타버스 안 NFT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NFT가 무엇인가요?

〈메타버스 골드러시〉, 문민호 저자는 NFT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일컬어진다. 쉽게 말해, 디지털 작품이나 자산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유번호를 매김으로써 유일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예술 작품을 예로 들자면, 디지털화된 예술 작품은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끊임없이 위변조되고 복제된다. 이렇게 되면 원작자는 창작권이나 수익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디지털화된 예술 작품에 NFT를 부여하면 원작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NFT를 적용한 디지털 그림 10

점을 2021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가 무려 65억에 팔았습니다.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게시해온 사진 5,000개를 모아 만든 콜라주 작품인 〈나날들: 첫 5000일 Everyday: The First 5000 Days〉은 무려 6,930만 달러(약 8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가상 공간 메타버스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 1) 첫째, 돈의 유혹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 2) 둘째, 과도한 몰입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 셋째, 현실 세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4) 넷째, 해야 할 일 그리고 돌아야 할 사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 5) 다섯째, 정서적 불안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 6) 여섯째, 광활한 메타버스 속에서 길을 잃은 미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7) 일곱째, 메타버스 안에만 머물고, 영적으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해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100불 할인예약증
(환율변동)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중앙간담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해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진유철 칼럼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흠여져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재정비하고, 말씀대로 모든 제사법을 회복시키며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중동의 패권국가 앗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호전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축대밭으로 만들고 그보다 훨씬 작고 힘없는 남유다를 포위한 채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앗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명의 앗수르 군사를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첫 번째는 답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배 뒤편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풍이 부는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며 흔들리자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배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

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답은 몰랐지만 주님을 깨워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계속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때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가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포나 신앙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풀이나 감정해소를 기도로 착각해서 자기 사정만 얘기하다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을 때 다윗이 백전백승할 때의 공통점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유

명한 골리앗과의 전쟁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다 골리앗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친구와의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일성수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새벽예배로 믿음을 선포하고, 사업을 하면서 먼저 십일조로 믿음을 증거하고,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먼저 기도회로 믿음을 심으면 내가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상대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승리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지금도 연애 중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지금도 퇴근하여 집으로 갈 때, 가슴이 설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1초라도 더 빨

리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 모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교수님이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혼이라면 이해하지만,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신혼 때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펼쳐 버릴 수 없었던 생각은 이 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떠들썩한 연애를 했다 할지라도 안타깝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정말 천연기념물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펜싱하는 여학생과 방송국 기자인 남자 선배와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으로 드라마

를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물론 펜싱선수 나희도 역의 김태리의 연기력이 한몫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드라마 한 편에도 울고 웃나 봅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도 심장이 콩닥거리면 병원에 가봐야 할 일이지만, 주님과 사랑은 오늘도 드라마에서처럼 콩닥거리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때, 책상 앞에 “내 심장은 주님을 위해 뛰다”라고 붙여 놓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심장 전문의 피터 박사님(GMMA대표)의 책을 보니 첫 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심장으로 뛰게 한다”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20

대 청춘에도, 50대 중년에도, 그리고 꽃다운 70, 80대에도 여전히 첫사랑처럼 심장을 뛰게 하나 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서 총총걸음으로 예배에 달려오는 자라면 틀림없이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를 너무 받아서 K-Drama 감동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벅찬 눈물을 흘린다면, 두배로 행복한 분입니다. C. S. Lewis는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나중에 천국이 아주 낯선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낯선 곳이라면 천국이 아닐지도 모르죠. 오늘도 주님의 amazing grace를 감동 속에 외치며 주님과 계속 연애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재 '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그에게 L의 안부를 물으니 2003년 가을에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4월에 감옥에서 옥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인적도 드문 산골에서 숲구이하는 사람

을 보위부가 무슨 까닭으로 체포했던 말인가?” 웬만한 사람은 찾아가기 힘든 산골을 보위부가 무슨 일로 찾아가서 그의 사상을 검증하는가 싶어 묻는 말이었다. 그러자 그는 L이 숲구이 막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만든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내가 산골을 떠난 뒤 그는 그곳을 보란 듯이 기도처로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들인 모양이었다. 인적 드문 산중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산림보호원이 보위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보위부가 기습적으로 숲구이 막을 덮쳐서 그를 끌고 갔다는 것이다. 보위부의 기습이 어찌나 민첩하고 비밀스러웠던지, 그날 기도 중이던 사람들 모두가 끌려갔고, 현장에서 수집한 성경책으

로 변명 한번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고문장에서 심문을 받다 6개월 뒤 모두 옥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전한 다음 말은 참나무 숲처럼 죽어서도 썩은 세상을 정화하고 싶었던 생전의 그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L은 짚뽕이 산에 올라 기도 동굴을 여러 곳 발견하고 개발해 두었는데, 그가 떠난 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동굴을 비밀 기도처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한 그도 L의 전도를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했다. 온 얼굴을 숲으로 먹칠하고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던 친구의 천진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죽어서도 숲처럼 세상을 정화시키고 싶었던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던가. 생전에 발굴한 기도 동굴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말을 들으니 다시 그날의 감동이 뜨겁게 끓어오른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육신이 죽은 자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한 장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감사하다. “하나님은 죽은 자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주를 위해 향기를 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몸을 불살라 세상을 정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홈스쿨링 학습 도서 다수 집필한 저자의 작품

안심하고 자녀들 읽혀도 되는 세계사 교과서



성경적 세계관 입각한 세계사 다루는 책
기독교 무관한 역사에서도 적용 찾아내
예수는 주님이란 진리 되찾으려는 시도

학교 공부를 통해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다음 세대 성도들이 꽤 있다. 진화론을 확정된 사실처럼 가르치는 과학 교과서도 그렇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 '크리스트교' 운운하면서 타종교에 비해 훨씬 분량도 적고 내용도 부정적으로 서술한 사회와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을 통해 6천 년의 세계사를 다루는 책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동산에서 출발해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마무리하기까지, 그야말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세계 역사 교과서이다.

전 3권의 책 중 1권은 '창조에서 발견의 시대까지(B.C. 4004-A.D. 1500)'라는 부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기독교의 탄생을 거쳐 중세 십자군 전쟁과 신대륙 발견까지를 다룬다. 기간으로 따지면 5,500여 년에 달한다.

2권은 '신세계에서 근대까지(1500-1900)'를 부제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부터 노예제도, 부흥운동과 과학혁명, 국가 건설 등 근

대까지 400년 간을, 3권은 '근대에서 현대까지(1900-현재)'를 부제로 러시아 혁명과 두 차례 세계대전, 68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 오늘날까지 100여 년 간을 각각 다루고 있다. 3권은 단 100여 년만 들어 있지만, 가장 두껍다.

저자는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자일 뿐 아니라 홈스쿨링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은 전문가로 수많은 관련 학습 도서를 집필했다고 한다. 그 자신이 아내와 1985년부터 네 자녀를 직접 홈스쿨링으로 가르친 경력자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 권 모두 34장씩 들어 있어, 총 102개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장은 다섯 개의 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를 공부하는데 약 20-30분이 소요된다. 울컥거리기 아닌 점은 아쉽지만, 교과서답게 관련 사진들도 풍부하다.

각 과 마지막 '토론 문제'는 기독교와 무관해 보이는 역사에서도 적용점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교사 안내서'도 별도로 있는 듯하다.

토론 문제에서는 알렉산더를 소개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관련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나온 책들 중 가장 중요한 열 권을 도서관에 갖다놓을 수 있다면?'이라고 질문한다.

18세기 과학 발전에 대해선 "진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낸 일이었다"며 "18세기에 인간은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자 더 이상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안타깝게도 18세기의 '계몽된 인간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됐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20세기 미국 교육의 발전 상황을 서술하면서는 '홈스쿨링'의 선구자 존 홀트의 발언을 소개한다. "아이들이 자라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 가정을 그 기지로 삼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가정이 다른 학교들보다 더 좋은 학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은 인위적인 장소, 즉 '학습'이 일어나게, 또한 '학습'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설치된 장소가 아닌 것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핵심적 의미는 각 시대에 담긴 진실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진실, 즉 각 시대가 주는 지혜를 발견한다면 아마 그것을 어느 정도 오늘날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의 시작과 발전을 이해하려는 것이 역사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나는 '진리를 찾아 나서자'고 하지 않았다. 확실히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길ियो, 진리요, 생명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저 역사를 살펴보고 어떻게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국가, 그리고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역사의 전개를 보면 알 수 있듯, 역사는 뚜렷하게 객관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사회 교과서를 비롯해 제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반석 같은 진리를 되찾으려는 시도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인류의 진정한 역사의 흐름"이라며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손으로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일깨우고자 이 책을 썼다. 에덴동산에서 인류를 위해 시작하신 역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스쿨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없는 지식'이 채워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원제 'Studies in World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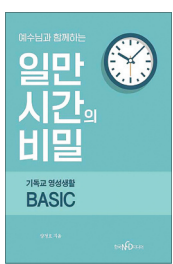
이대웅 기자



[7월, 작가들의 말말말④]

◆양정호 -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만 시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대한



민국 국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80%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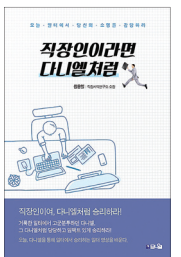
으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달리 표현하면 영성 생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용일 - 직장인이자 다니엘처럼

이 두 나라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한다.

포로의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오늘 이 시대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정체성도 바로 이런 두 나라의 정체성이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좀 빌리면 '세상 속에 사는 흠어진 나그네'(벧전 1:1)이다. 우리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수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고제하는 모습을 기뻐하

신다. 그러나 교회생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질 유일한 영성의 마당인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인 세상이 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dvertisement for Alex Kim Trading, featuring '중고차의 황제' (King of Used Ca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vid Kim.

Advertisement for hair services, featur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Do you want to be a hair cutting exper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un Lee Insurance, featuring '생명보험 IRA, Annuity' and '20 YEAR TERM LIFE INSURANCE' tables.

Advertisement for Junimmedia, featur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 (Diverse Content Cre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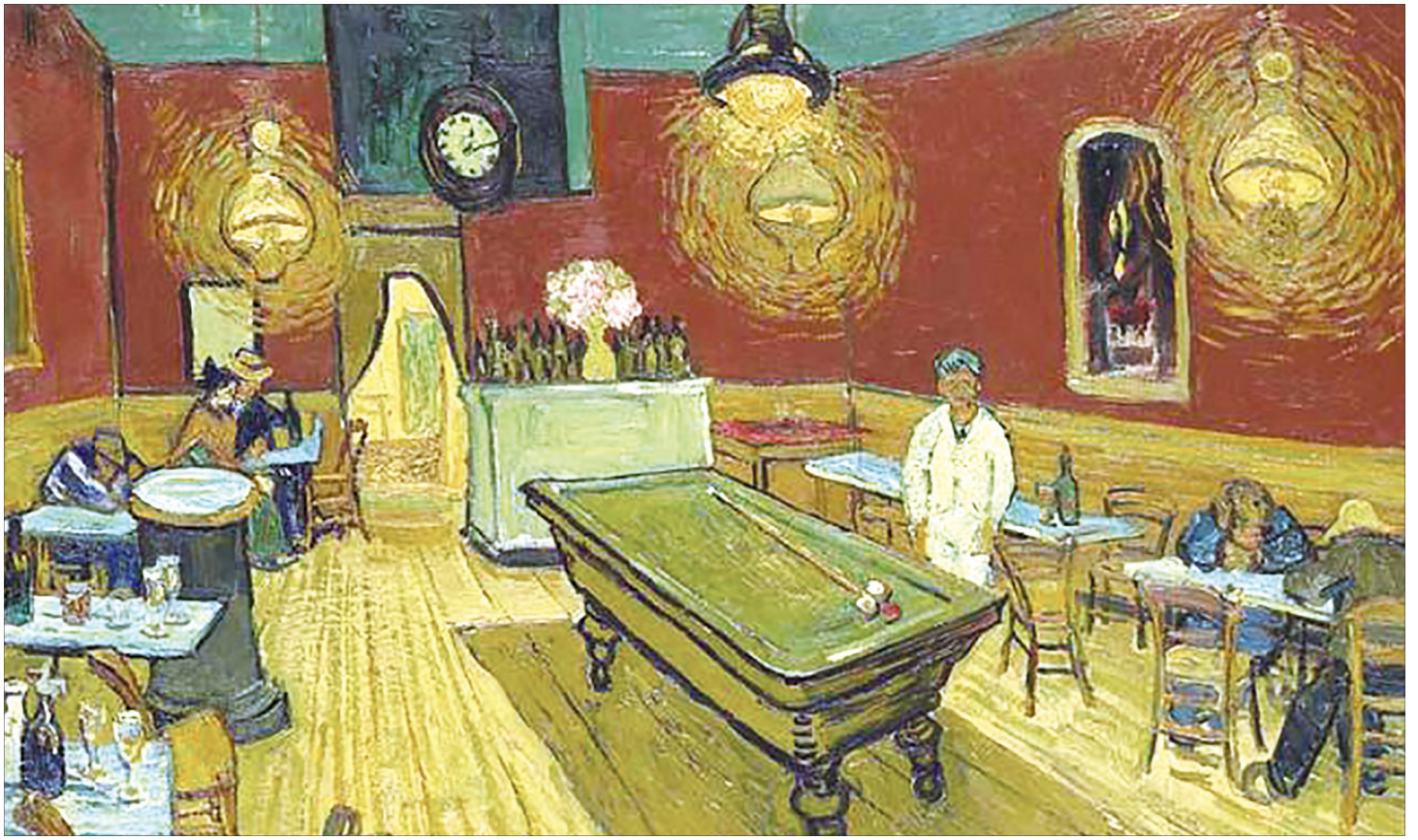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Inex Auto Collision Center, featuring '아이넥스 바디샵' (Inex Body Shop)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ooking Mom, featur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Welcome for all occasions) and contact information.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어두움마다 비추는 불빛, 반 고흐 <밤의 카페>

반 고흐가 그림으로 담아낸 '그리스도의 사랑'

가스등에서 나오는 불빛,
침침한 공간 밝혀
방 안 사람들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나뉘
방황하는 사람들
찾고 계신 심정 표현한 것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1888, 캔버스에 유채, 72.4 x 92.1cm, 예일대 아트갤러리 소장).

헤밍웨이(Hemingway)의 단편 <깨끗하고 밝은 곳(A Clean, Well-Lighted Place)>은 어느 카페의 모습을 줄거리로 삼고 있다. 밤이 깊었지만 카페안의 노인은 귀가할 뜻이 없어 보인다.

젊은 웨이터는 자신의 퇴근이 늦어질까 노심초사하지만, 동료인 나이트 웨이터는 노인을 서두르지 않고 잠을 성이 깨지 않도록 기다려 준다. 한참 후에야 노인이 계산을 하고 힘없이 나간다. 손님이 떠난 후 나이트 웨이터는 인생에서 무서운 것은 두려움도 공포도 아니며 바로 '허무'이고, 인생은 결국 허무하기 때문에 '깨끗함'과 '밝은 불빛'이 필요하다고 혼자 말을 내뱉는다.

여기서 '깨끗하고 밝다'는 것은 바깥의 어둠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을 표상한다. 어떤 의미로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인본주의자의 바람을 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헤밍웨이는 '깨끗하고 밝은 곳'을 희망처럼 말하지만, 잡시의 망각 뒤에는 어김없이 낙담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회의는 삶의 의욕을 꺾어버릴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해 버리는 '사고의 빈곤'을 입증한다.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밤의 카페>(1888)는 현실의 좌절과 그곳에 임한 구속의 손길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의 소재가 된 이 카페는 그가 머물고 있는 건물에 딸려 있었다.

"오늘 밤부터 내가 세든 카페 실내를 가스등불 아래에서 그리기 시작할 거야. 사람들이 '밤의 카페'라고 부르는 곳인데, 밤새 문을 열어두지. 방세를 낼 돈이 없거나 너무 취해서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밤의 불량자들'은 여기서 쉬어갈 수 있어."(1888. 8. 6)

고흐는 이곳의 방문자들을 중의적으로 파악한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을 묵고자, 또 어떤 사람은 향락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림 속 시계 바늘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고, 빈 테이블에는 술잔과 술병이 나뒹굴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취객의 모습도 눈에 띈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며 "카페란 자아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미쳐버리게 하거나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했다. 고흐가 읽었던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에는 술 취한 사람들의 말다툼과 싸움이 빈발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당시 프랑스 카페가 어떠했을지 분위기를 짐작

작게 해준다.

고흐가 찾은 아를의 카페는 '밤의 유랑자들이 밤의 유랑을 마무리하는 곳'(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이었다. 그러니까 고흐가 이 그림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이 카페가 일차적으로는 '밤의 유랑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흐는 이곳이 취객과 창녀들, 포주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동료 화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밤의 카페를 찾았을 때 "포주와 매춘부가 막 다름을 마치고 난 직후 여인은 시큰둥하고 잘난 체 하는 데 비해 남성은 그녀를 구슬렸다"(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고 했다. 당구대 뒤 편으로 나 있는 계단은 윤락 장소의 입구임을 암시한다.

고흐가 이곳을 그린 이유가 궁금하다. 이곳의 주인 지누(Joseph-Michel Ginoux)는 그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고흐는 지누와 지누 부인과의 친분으로 부인의 초상을 그려주기도 했다. 화면의 중앙에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인물이 카페 주인인 지누이다.

아마도 고흐가 이 곳을 택한 것은 삶의 명암이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클리프 에드워즈(Cliff Edwards) 역시 빈센트가 실내를 성스럽게 만들어 안전한 공간을 나타내는 동시에, 위험을 경고하는 장소라고 보았다.

고흐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이 직조되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든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이 아닐까?

반 고흐는 평소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빈원의 사람들과 목공소나 세탁업 종사자들, 열악한 환경에서 직물 짜는 사람들, 실직자들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는 카페 그림을 그리기 바로 전날 동생 테오에게 "그림으로 음악처럼 위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실제적인 광선과 색채의 파장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옛날에 후광(halo)이 상징하던 것과 우리가 찾던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싶다"(편지 531)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일까? '실제적인 광선과 색채의 파장'은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에 반사되는 빛을 발산하여 화면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고흐는 위험한 장소를 감싸는 비가시적인 요소, 즉 '위로'와 '후광'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시 한 번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시선이 나타난다.

여러 번에 걸쳐 그는 자신의 그림이 밀물과 썰물처럼 변하는 바다의 모습처럼,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싶어했다. 비록 어둠과 죄에 빠져 있다라도 그곳에 파스한 자비의 손길길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헤밍웨이의 소설에 등장하듯 인생의 허무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는다면 주저 없이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그것의 설정이 매우 흥미롭다.

그림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닥

이나 테이블이 아니라 천정에 달린 가스등이다. 카페의 사람들에 가려 천정의 가스등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림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가스등에서 나오는 불빛이다. 영롱한 불빛을 침침한 공간에 비추는 불빛이 야말로 고흐가 강조하려고 했던 이미지이다.

이상하게도 작가는 가스등을 한 군데만 비추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곳마다 그들을 환하게 비추게 하였다. 이것은 실제 광경이라기보다 고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빛은 방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나누어 준다. 그것은 <감자먹는 사람들>(1885)의 궁핍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은총의 불빛'이고, '구원의 불빛'이다.

어쩌면 이 그림은 지금도 어디선가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말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고흐는 절망스러운 상황 아래 놓인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가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 렉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스라야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관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연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장학금

가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서류심사

원서접수

Table with 2 columns: 가을 학기 접수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합격자 발표, 2022년 8월 15일(월)

가을학기 일정(10주)

2022년 9월 6일(화) - 11월 11일(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Baeksong.kr

이순희목사 2022/08 해외사역 일정안내

8/1(월) - 8/3(수) (주강사:이순희목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수양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 (Fresh Start for Recovery!)

미주성결교회 교역자회 회장-김성식목사

이순희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서울신학대학원 Th.D 선교학
서울신학대학원 Th.M 선교학
서울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M.Div

도서 <복음과 영적전쟁>, <복음과 내적치유>
<영혼을 살리는 찬양> 1,2 저자



8/5(금) - 8/14(주일) (10일간, 저녁 집회)

15차 LA 백송교회 성령컨퍼런스

저녁 7:30 ~ 설교:이순희목사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674 7966

LA 백송교회 김성식목사

성령컨퍼런스는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회복의 예비**로 깊은 영성훈련에 돌입하는 집회입니다.

8/22(월) - 8/25(목) (4일간, 저녁 집회)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성령컨퍼런스

저녁 7:30 ~ 설교:이순희목사

#15-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 문의 647-637-4013

잠재력의 문을 열고 빛을 받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 독 교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245 6616

담임목사 김성식